

광주 자동차부품 산업 GGM 훈풍 타고 날갯짓

GGM차량 양산 앞두고 활기
차체·사시, 의장, 시트 사업화
2022년까지 60억원 투입
연 747억 매출 일자리 창출 기대

오는 9월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첫 경형SUV 차량 출시를 앞두고 광주 자동차부품 산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재)광주그린카진흥원이 주관하고 한국자동차연구원과 한국광기술원이 참

여하는 '경형 SUV 부품 사업화 지원사업'을 본격화 한다.
이번 사업은 2022년까지 총 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역 부품기업의 모듈(차체·사시, 의장, 시트) 사업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역 자동차 부품의 품질향상을 통해 GGM 생산 차량에 대한 지역 내 부품조달과 타 완성차 기업에 납품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제마진 고난도 부품 제조 공정 개선 ▲융합 전장 제품 시장확대 인증 ▲융합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술융합 아이템 발굴 ▲자동차 부품기업 제질개선 지식 공유 플랫폼 구축 ▲사업 다각화 마케팅 지원 등 5개 분야의 맞춤형 통합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 역량 강화를 돕는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시행한 1차년도 모듈사업화 사업에는 5개 과제 10개 기업이 상생협력을 위한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해 과제를 수행했다.
이들 기업은 GGM에서 오는 9월부터 양산하는 경형SUV차량의 부품을 납품하며, 올 연말까지 총 210억원의 매출이 예상되고 있다. GGM의 차량생산이 본격화되면, 향후 매년 747억원의 신규 매출이 기대된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실제 2차 협력사인 광주알엔에이(주)는 1차사인 (주)동희하이테크와 공동으로 전방 충돌 구조물을 개발해 GGM에 납품하게 됐고, 타 완성차에도 납품하는 성과까지 내면서 매출과 고용이 크게 늘어

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차년도 사업은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20억원을 투입해 경형 SUV에 납품하는 부품의 품질 향상 및 공정을 개선한다. 시는 지역 부품기업의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하고, 신규 자동차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연관 기업의 역량 강화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손경중 광주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자동차 부품기업의 판로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9월 GGM에서 생산하게 될 신차 부품 납품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역 내 혁신기관과 함께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여수광양항 항만 채선을 해소
전남도, 신규부두 건설 등 추진

전남도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광양항만공사와 함께 여수광양항의 항만 채선율을 해소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규부두 건설, 항로 준설 등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채선율은 선박이 항만에 입항한 후 정박 공간 부족으로 정박지에서 12시간 이상 기다리는 비율을 말한다. 2020년 기준 여수광양항은 4.69%를 기록, 부산항 0.2%, 울산항 1.96%, 인천항 1.28% 등 다른 국가무역항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 등은 채선을 완화로 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고 판단, 새로운 항만시설을 확충함으로써 항만의 생산성을 높이고, 채선율을 해결해 여수광양항의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오랫동안 국가 기간산업의 발전을 이끈 여수 석유화학단지 등의 사용 연수가 오래돼 안전성 확보가 시급한 ▲제품부두 리뉴얼 ▲낙포부두 리뉴얼 ▲중흥부두 리뉴얼 등이다. 또 ▲목재부두 ▲울촌철재부두 ▲LNG 병커링 ▲광양철재부두 ▲제2석유화학부두 건설 등도 추진한다.
또 대형선박이 통항 가능한 항로 확보를 위해 ▲특정해역준설공사 ▲3투기장 전면항로 준설 ▲정박지 준설 ▲제품부두 준설 ▲원료부두 준설 ▲제3항로 준설 ▲여천항로(묘도 수도) 준설 등으로 순환형 안전항로 구축과 선박 통항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d@kwangju.co.kr

메가시티 초광역협력사업 발굴
광주시-전남대, 머리 맞대다

광주시 지역혁신협의회와 전남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BK교육연구팀이 광주·전남 메가시티 추진 등 초광역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지역혁신협의회는 지난 29일 전남대 경영대학 회의실에서 균형발전 대응전략 연구분과 공동회의를 열고 초광역 협력프로젝트와 메가시티(3+2+3) 대응전략 등을 논의했다.
첫 발제자인 시 균형발전정책과 류재준 전문위원은 문재인 정부 전·후반기 지역발전 정책을 설명하고, 국가균형발전 핵심사업으로 추진했던 지역발전투자협약,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초광역 협력프로젝트 등의 선정 과정과 사업 내용을 설명했다.
류 위원은 메가시티와 관련한 대응전략에 대해선 "호남권과 광주·전남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및 선제적 초광역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진 전문연구원은 메가시티 추진에 따른 권역별 통계분석을 발표하면서 "광주시가 미래 전략사업인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등을 선도할 기술개발과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지역의 인구 유출 문제 해결과 성장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세선 연구분과장(G.I.P 대표)은 이어진 토론회에서 "경제사실적 측면에서 지역간 협력과 이를 뛰어 넘는 초광역 프로젝트 사업 발굴이 중요하다"고 했고, 정대영 위원(공감P&D 대표)은 "기존 인프라를 이용해 메타버스·클라우드산업 육성과 활용을 위한 정책 및 초광역 협력아이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남대 BK교육연구팀 이찬영 팀장은 "지역혁신 주체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인재 양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호남권 메가시티 구축이 필요하다"며 "학계도 시와 유기적인 협력망을 구축해 지역현안에 공동 대응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균형발전 대응전략 연구분과협의회는 지역혁신협의회 정책지원과 초광역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지난 3월 교수, 민간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운영 중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송하진 전라북도지사가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정에 환경부 장관을 만나 지난해 8월 집중호우에 따른 댐 하루 수해 보상 관련 공동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하진 전북도지사, 한정에 환경부 장관,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영록지사, 신규사업 국비 확보·흑산공항 해결 분주

섬진강 수해피해보상 관련
전북도와 공동 대책 요구도

김영록 전남지사가 2일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를 잇따라 방문해 내년 국고 신규사업 반영을 비롯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유치, 섬진강 댐 하류 수해 관련 국가적 보상, 흑산공항 건설 등을 강력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기재부 안도걸 2차관과 최상대 예산실장, 김완섭 예산총괄심의관, 임기근 경제예산심의관, 강완구 사회예산심의관, 국토교통예산과장, 산업중소벤처예산과장 등을 만나 내년도 현안사업 국고 지원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또 한정에 환경부장관을 면담, "지난

5월 아랍에미리트(UAE)의 COP28 유치의사 표명으로, 개최국 결정이 2022년 11월 COP27까지 연기될 상황이 우려된다"며 "오는 11월 영국 글래스고 COP26 개최 전에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동권 12개 시군이 국내 개최지로 선정되도록 국가의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특히 섬진강 수해 피해보상과 관련, 전북도지사와 함께 정부 차원의 특단 대책을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구례, 곡성 등 섬진강댐 하류 4개 시군에 수해가 발생, 피해조사액이 1983억원(잠정)에 달한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한국수자원학회에 의뢰한 '댐 하루 수해 원인 조사용역' 최종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공동건의문에서 두 도지사는 "정부 수해원인 조사용역 결과 법·제도의 한계, 댐 운영 미흡, 댐-하

천 연계 홍수관리 부재, 하천의 예방 투자 및 정비 부족 등 복합적 요인으로 분석했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과 여론은 '홍수기 댐 운영관리 부실이 직접 원인임에도 지자체로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홍수피해 근본원인을 명확히 해 홍수조절 실패 책임을 명시하고 국가차원에서 피해 주민 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공약사업인 흑산공항 건설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의결을 지원하고, 섬진강 홍수관리, 하류 염해, 광양만권 대기환경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섬진강 지방환경청을 신설해야 한다"며 "수송부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운송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국비 추가 지원도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윤현석 기자 chadod@kwangju.co.kr

광주시, 보육환경 개선

공공형 어린이집 10곳 추가

광주시는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선정해 운영비를 지원하는 곳이다.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추가로 선정하는 공공형 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 4곳·가정어린이집 6곳이다. 현재 운영 중인 공공형 어린이집은 87곳이다. 평가인정 A등급 이상, 개방성, 운영 안정성 등을 다양하게 평가하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올해 한시적으로 정원 총족률을 5% 하향(75%)한다.
선정된 곳은 보육교사에게는 국공립 1호봉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고 반·아동 수에 따른 운영비 및 환경개선비 등을 3년간 추가 지원한다. 3년마다 운영 실태를 평가받아야 한다. 지정을 희망하는 어린이집은 11일까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강은순 광주시 출산보육과장은 "국공립 확충과 더불어 공공형 어린이집 신규 선정을 통해 부모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24시간 긴급아이돌봄센터 운영 등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해서 개발·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창립 40주년 고객 감사 이벤트

대상
300만원 상당(1명)
금 10돈

1등
100만원 상당(1명)
건조기

2등
50만원 상당(2명)
청소기

3등
30만원 상당(3명)
쿠루밥솥

4등
10만원 상당(10명)
에어프라이어

5등
5만원 상당(20명)
온누리상품권

경품행사기간 : 6월 21일 ~ 10월 31일

#경품추첨일 2021년 11월 10일

#경품추첨장소 대광금고 본점 3층 회의실

#경품응모권 지급 조건 ①자동이체 **신규 및 변경**(최소 5건 이상) ②출자금 **신규 및 추가**(최소 30만원)

#가입기본선물 고급 통장케이스 증정

MG대광새마을금고

본점(계림오거리) 062)222-5851

서남지점(문화전당역) 062)227-1532 **지산지점(법원정문 앞) 062)222-1431**

※ 본 경품은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제세공과금은 본인부담이며 상기 조건은 추첨일까지 유지자에 한합니다.